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6호 【루계 제23008호】주제 99(2010)년 2월 25일(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친애하는 동지들
나는 당신들께서 구바혁명승리 51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연대성, 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우카스프로루쓰

2010년 2월 19일

아바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이 24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사회주의 농촌건설사상을 제시하고 불면불휴의 령도로 나라의 농업 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헌정을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힘써여하였다.
그들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포진걸을 걸으며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렸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시려 현치지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수호의 위력한 보검

오늘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수호의 위력한 보검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받들려는 것은 남북관계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있다.
《이복은 선군으로 다져진 강철같은 자주의 성체》, 《민족의 앞날은 북에 있다》... 일마진 서울에서 진행된 《자주정치의 참주소》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울려나온 이 주장들에는 우리 공화국인민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철예한 대결전에서 선군의 위력으로 자랑찬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고있는 현실에 가슴후련함을 금치 못해 하고있는 남북여백들의 마음속 진정이 담겨져있다.
남북인민들은 선군총대야말로 민족자주의 신념과 의지의 결집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남조선출판물에도 선군정치의 위대성에 대해 해설하는 글들이 실리고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북의 자주의교와 막강한 군력》, 《자주와 존엄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동》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통일문제소속의 한 인사는 인터넷에 《자주의 총대외세의 반동일정정책을 짓부셔버리는 이복의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자주권은 확정적이며 자주로 변형할 통일조국의 미래도 밝은것》이라고 자기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 통일운동단체의 성원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는 6.15공동선언을 지켜주고 그 리행으로 온 민족을 추동하는 애국애족의 참정치이다. 지금 내외반동일세력이 정세를 북으로 몰아가며 악랄하게 도전하고있지만 민족을 굳건히 지켜주는 이복의 선군정치가 있어 자주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는 거세사상으로 일관된 위대한 정치이다.》
《통일조국의 어느 정치가도 실현할수 없었던 애국애족에민

본사기자

본사기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과 무비의 용감성으로 선군의 내 나라를 통성번영하는 대강국으로 빛내이자! (공동구호에서)

충진군의 기세드높이 석탄생산에서 혁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안주속도》를 창조하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막차게 일으켜나가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지금 련일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있는 2월에 들어와 총동원적 투쟁을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중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석탄생산을 더욱 늘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원 열의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철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련합기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우호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고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투쟁을 계속 확대하고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올해에 화공, 립석, 통일탄광의 생산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망과제를 다그쳐 끝내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혁명적으로 실천해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들에서 채탄구역이 확장되는데 따라 석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또한 강들을 영구화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하나하나 완성하고 쇄동발과 콩크리트침묵생산을 늘이고 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탄광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하면서 탄부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생산성파를 확대하고있다.

1월에 이어 2월에 청남탄광, 통일탄광, 신리탄광에서 면일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최근 청남탄광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투쟁을 힘

있게 벌려 갱안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무동력삭도를 설치하였다. 결과 운반능력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3배이상으로 높아지고 탄부들이 보다 월하게 일하면서도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었다. 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탄부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적극 고무추동함으로써 탄광에서는 대고조전투가 절정에 올랐던 지난해 12월의 하루 석탄생산량보다

고원탄광에서
고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중산의 불길에 세차게 지져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굴진과 채탄, 운반에 힘을 넣어 요즘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을 생산하고있다.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기데 힘을 넣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적조직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탄광참모부의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성과를

1.5배이상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신리탄광과 통일탄광, 화공탄광과 립석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모든 탄광들에서 면일 혁신적실적이 전해지고 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은 10월의 광장에 맺었던 열매를 따듯한 한마음을 안고 《안주속도》를 창조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석탄중산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확대해나가고있다. 탄광에서는 굴진에 힘을 넣어 진망이 좋은 채탄장들을 앞질러가며 마련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여러대의 압축기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접근시켜 압축공기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굴진소대를 잘 꾸리고 굴진경기를 조직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청년광과 로전광, 통일광과 승리광, 증산광을 비롯한 여러 갱들에서 굴진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탄광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생산조건을 마련하고있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긴장한 탄자 문제를 풀기 위하여 전차광과

승리광의 수백m에 달하는 운반구간의 레를 개조하여 전차와 탄차운행을 안전하게 보장하고있다.

진망이 좋은 채탄장들이 마련되고 운반능력이 높아지는데 맞게 탄광에서는 채탄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을 계속 늘이고 있다. 청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지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석탄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다.

한적채탄대, 립석채탄소대원들은 경사구 급한 막장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혁신쟁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심부지구에서의 석탄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혁신쟁에서는 막장통기문제를 자연순환식으로 해결하고 권양기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늘이고있다.

승리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교과기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갱안에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다음 교대를 위하여 작업준비를 미리 빈틈없이 해놓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면서 교대마다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약기자 박동석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레성강청년 2호 발전소 1호 발전설비생산 결속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의 불길에 새차례 탄진지는 가운데 대안당에서 또 한기의 대규모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빛나게 결속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1월 중순에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건설장에 보낸 타인의 안내장지침을 비롯한 타인보물생산물과 조립을 끝낸대 이어 열매진에는 발전기총조립과 유압장치조립, 변압기시운전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발전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빨리 만들어 보내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1월 초순 완공단계에 들어선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전해져 천백배로 힘과 용기를 가다

들은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일러마다에서 시간을 주름잡으며 놀라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발전설비제작장치의 로동자들은 작업장마다에서 드문 공적들을 올리면서 앞선 제반 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1월 상순에 기계를조립을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대상설비조립장치의 기능공들도 안내날개를 비롯한 가공부속품들이 생산되는데 맞게 조립 일정을 단속하기 위한 집체적 협의를 강화하여 타인안내장치조립을 앞당기고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보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발전설비 1가공장, 발전기련합장들을 비롯하여 발전기의 부품공과 및 권선보장을 맡은 여러 직장의 로동자들은 발전기총조립일을 앞당기는 열의를 자기들이 쥐고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 돕고 이끌어 긴장한 전투를 벌려 일정을 넘쳐 수행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전례없는 발전설비생산성과를 이룩하여 선군의 내 나라를 통성번영하는 대강국으로 빛내일 각오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총공세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조립장치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파시며 고정차조립, 회전차조립 등 복잡한 여러 공정을 립체적인 방법으로 밀고나갔다. 총조립작업반원들을 비롯한 직장의 모든 기능공들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립지침과 조립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덩치큰 발전기의 부분별 및 총조립작업에서 높은 책임성과 기술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도 1월말에 총력투쟁을 위한 기성생산을 무조건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집중함으로써 일러마다에서 혁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전례없는 발전설비생산성과를 이룩하여 선군의 내 나라를 통성번영하는 대강국으로 빛내일 각오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총공세의 불길에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중산의 불길 세차게 라번진다

단천지구공업총국아래 광산, 기업소들에서

단천지구공업총국아래 광산,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일러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을 떨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나라의 손꼽히는 대규모유색 금속광물생산기지인 김덕림련합기업소에서 채굴의 다량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굴진, 채운, 채광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심부지구와 상부지구의 모든 채굴장마다에서 중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금광광산 고경천채광소대, 김용일채광소대, 우송환

채광소대, 최광성광진소대 등에서 1.4분기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많은 소대, 작업반들이 2월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광석채굴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선광부에서도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단위시간당 정광생산량을 늘이고있다. 제3선광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비상한 혁명적열정을 안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하루 정광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거의 2배로 높이는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단천채련소에서도 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채련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조역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는 속에서 현행생산을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 1월에 이어 2월에도 유색금속생산량을 날마다 늘여가고있다.

이곳 채련소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관리사업

을 부단히 개선강화하여 제품실수율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한계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형청년영웅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광산으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생산성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힘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자연의 횡포에도 아랑곳없이 해발고높은 산에서 울해전투승리를 확실하게 발파소리를 연이어 울리며 채굴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광석생산량을 훨씬 늘여가고있다. 마그네사크림카분공에서도 설비마다만 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인민경제에 여러 부분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여러가지 크림카를 많이 생산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경에 력량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광산에서는 전면부식제굴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앞선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는 생산성장을 이룩하고있다.

단천마그네사크림, 선진리화물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년초부터 대고조전속도를 높이면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크령카생산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단천광산기계공장과 단천시약공장에서 물질기술적대대를 훈련시켜주고 광산, 기업소들에서 요구하는 광차와 전차, 부속품, 시약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욱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흥남가스화대상광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여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인 농촌개혁이 발표된 때로부터 어느덧 4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농장길, 포진길을 걷고 걸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사회주의 농업발전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해례》

농촌개혁발표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를 성취적으로 실현한 다음 력사적인 농촌개혁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길을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습니다.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해례는 우리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옹계 해결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시기 선행고전가들과 정치가들은 사회주의혁명시기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에 관한 리론으로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사회주의 농촌경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고있었다.

이로부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농업부문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었지만 농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좌우경적변환들이 나타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 새 조국건설의

첫 날부터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문제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농업발전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업부문의 진반적실태를 료해하시면서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혁명적 령도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농업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었다.

그러나 수백년세월을 두고 내려오던 봉건적관습과 빈궁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사회주의농촌경리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간다면 아직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아직 미약하였고 농민들의 생활수준도 그리 높지 못하였으며 농촌을 홀신하는 일부 일군들에 의하여 농촌의 적지 않은 로력이 도시를 푸리는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과제 수행에 동원되고있었다.

농촌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나라 농업의 이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늘날 농업부문의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이미 토지개혁을 실시한데 이어 농업협동화를 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놓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의연히 남아있다고 하시며 이 차이를 없애자면 우선 특별한 처방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리론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 미진부터 그런 길을 쓰려고 생각하였기때문에 여러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농업부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앞으로도 농촌에 대한 실태를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국의

여러 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농촌문제에 대한 연구를 전면적으로 심화시켜나가지였다.

그 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사색을 이어가시며 걷고걸으신 농장길, 포진길은 그 열매였었다.

서해안지방의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신어는 농장을 이끌어 나갈 핵심력량이 부족하다는것을 아시고 제대군인들을 보내주시어 농촌진지를 강화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중부지대의 어느 한 산골농장을 찾으신어는 이 고장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늘릴 방도도 함께 의논해 주신 이야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제 52 (1963)년에만도 황해북도와 함양도, 평안남도과 황해남도의 수많은 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농민들이 잘 살아가 나라가 부유해지고 농업이 흥해야 나라의 모든 일이 잘되어나간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해 끝없이 이어가신 현지과 리고의 자욱자욱은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주제 52 (1963)년 12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장전회의를 여시고 《사회주의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최근 농촌문제에 대하여 집중적 연구하고 중요한 결론을 짓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일부 나라들에서 농촌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서 찾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신 다음 사회주의 농촌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현지에 자주 나가시어 농민들과 담화를 나누시며 농촌문제의 중구대구를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지였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농촌개혁을 준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촌경리는 장군님과 함께 온천군 읍을 찾으신어는 농촌경리를 위한 끊임없는 사색을 나누시던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이날 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현지에서 나와서 인민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말을 들으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면서 오늘날도 이 농장길과 포진길을 걸으며 농촌경리를 위한 끊임없는 사색을 나누시던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기본과제들을 뚜렷이 명시한 농촌개혁발표문헌에서는 거대한 전진이 일어났다.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과 농자가 더욱 강화되어 지난해 후추하고 뒤떨어졌던 농촌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바뀌어가고 사회주의농촌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로동당시대의 문화농촌으로 변모되였다.

나라의 농장별 그 어디에 가나 시원하게 펼쳐진 규격조건들이며 그물처럼 깔간데없이 펼쳐진 자연로프식물과 함께 수로로, 영농전투로 들끓는 현대농촌의 활력 넘치는 기계화의 노래소리, 농장마다 일떠선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학교, 유치원, 문화관, 인민병원, 진료소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 령도밑에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일광농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사회주의 농촌건설구상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사회주의농촌개혁이 개척하는 길을 따라 날로 더욱 발전하는 우리 나라 농촌과 더불어 농업발전이 쉼없이 이어져나갈데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용 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의 한해, 대고조의 한해로 빛난 지난해에는 세인을 경탄시킨 격동적인 사변들과 함께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일화들도 수없이 태어났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한 일군에게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그의 앞날까지 축복해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지난해 9월 어느날 초강도강행군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나날에 만나시었던 한 일군에게 대해 졸렬 생각하고계시였다.

그는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철 생산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하는데까지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성직적강령합기업소 한 공장의 일군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완강한 투쟁기풍이 더없이 미더우시어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력사적인 대고조전투의 불길에 타오르던 시기 그 일군이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는 강격적인 화폭이 성직적강령합기업소에 펼쳐지게 되였다.

그날 온 성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었다.

새로운 주체철생산방법의 성공을 위하여 농장에 유능한 일군을 찾아사람이 그처럼 필요한 때에 앞으로의 더 큰 위훈창조를 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셔 우리 조국의 미래가 그처럼 휘황찬란하고 우리 인민의 행복이 그토록 아름답게 꽃피고있는 것이다.

성감장애 새겨진 이 가슴뜨거운 일화는 주체철의 쇠뿔과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일하고있는 일터를 찾으시었다.

주체공업의 위용떨치며 거창하게 일떠선 주체철생산공정들, 정인 사변들과 함께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일화들도 수없이 태어났다.

그중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한 일군에게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그의 앞날까지 축복해주신 감동깊은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지난해 9월 어느날 초강도강행군길을 위임없이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나날에 만나시었던 한 일군에게 대해 졸렬 생각하고계시였다.

그는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철 생산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하는데까지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성직적강령합기업소 한 공장의 일군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완강한 투쟁기풍이 더없이 미더우시어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력사적인 대고조전투의 불길에 타오르던 시기 그 일군이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는 강격적인 화폭이 성직적강령합기업소에 펼쳐지게 되였다.

그날 온 성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었다.

새로운 주체철생산방법의 성공을 위하여 농장에 유능한 일군을 찾아사람이 그처럼 필요한 때에 앞으로의 더 큰 위훈창조를 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셔 우리 조국의 미래가 그처럼 휘황찬란하고 우리 인민의 행복이 그토록 아름답게 꽃피고있는 것이다.

성감장애 새겨진 이 가슴뜨거운 일화는 주체철의 쇠뿔과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이 모든것을 커다란 기쁨과 만족속에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감의 로동계급이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겠다고. 변이 나는 올해 마지막을 성감아 빛나게 장식하겠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윽고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하는데 이바지한 로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리시듯 생산공정을 보고 또 보시던 그이께서는 평범한 한 전사의 안부를 물으시고 나서 그가 이번엔 큰일을 했다고 우렁우렁하진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였다.

순간 장에는 쇠뿔보다 더 뜨거운 격정이 세차게 소용돌아쳤다.

력사적인 100일전투기간 일군이 해야 할 일까지 다 맡아안으시고 성감아 빛나는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한 장군님에 이르러 경애하는 장군님, 그러시고도 한 전사의 사업성파를 그렇듯 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없는 고마움에 휩싸여있는 기업소 일군들에게는 잘 잘 도와주라고, 공장에 들어온 일을 더 잘할것이라고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일화는 많고많은데 이런 믿음, 이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일화는 고마움에 휩싸여있는 기업소 일군들에게는 잘 잘 도와주라고, 공장에 들어온 일을 더 잘할것이라고 하시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일화는 많고많은데 이런 믿음, 이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는가.

성감장애 새겨진 이 가슴뜨거운 일화는 주체철의 쇠뿔과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재일 본조선인척하단을 만났다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리기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척하단을 만나 동포애의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령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리기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척하단을 만나 동포애의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평양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리기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척하단을 만나 동포애의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판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수용발전소 조달위원회에서는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일당백의 기본열쇠

어느날 12월, 땀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군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어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크나큰 믿음

어느날 12월, 땀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군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공창고에도 들리시여

지난 1월의 새해벽두 군수시울류경주제 105명사단만 하 구분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창고에도 들리시어 병사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공격정신

어느날 12월, 땀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군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공격정신

어느날 12월, 땀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군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어느날 12월, 땀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군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어느날 12월, 땀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군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어느날 12월, 땀뻘 추위로 마다하지 않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전군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선군사상학은 선군사상학을 실속있게 연구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혜택의 참다운 향유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주영회녀성에 대한 취재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9산과가 아니라 5에기과에 가 보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평양산원 5에기과에 들리게 되었다. 평양산원에는 여러개의 에기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5에기과는 산원에서 에기과를 «판문»으로, 또 하나의 «소생과»로 불리우는 중요한 단위이다. 바로 이런 과에 합동시 선전강구역 하신동 10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주영회동무가 낳은 에기과 김금후송원것은 지난해 9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주영회녀성은 몸을 풀기 위하여 친정집으로 가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에기일을 앞당겨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별차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와 만난 5에기과 의사 조은희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산모를 위해 정성을 다한 려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소생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말하지 못하였다. 그럼수밖에 없었다. 평양청년력개별차승무대의 승무대원들과 김형직군의 대학 학생을 비롯한 많은 려행자들이 주영회동무가 몸을 풀수 있도록 정성을 다 바치기도 이를 석사 알려주지 않고 산모를 평양산원으로 바래워주었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산원 의료인들은 어느 한 려행렬차의 승무대로부터 산모와 에기과를 넘겨받은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당시 산모는 최종상태에 있었고 에기는 조산이었다. 산모는 9산과로, 에기는 5에기과로 김금후송원것이다. 우리 녀성들이 «친정집»

에기과로 옮겨져 있었다. 평양산원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른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산원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시는 수많은 고가약물과 우리 의료인들만의 뜨거운 지성은 그대로 생명수가 되어 산모와 에기의 몸에 흘러들었다. 산원의 창가에 아름다운 수도의 야경이 비쳐들던 어느날 밤, 받아안은 온정에 베개잇을 적시는 주영회녀성에 9산과과장 김애순동무는 이런 말을 하였다. «머지않아 우리 산원이 창립 30돐을 맞게 되는데 바로 평양산원이 일떠서던 그때에 있는 일입니다. 당시 새로 건설되는 평양산원을 받아안고 돌원한것은 지난해 11월이라고 한다. 그는 자기들에게는 남다른 긍지가 있다고 하면서 한류음의 편지를 내놓았다. 무산에서, 숙천에서, 강동에서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광부, 농민, 관공의 안해를 이 보낸 편지속에는 나날이 커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 녀성은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자기 아이가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할 때 찍은 사진까지 보냈다. «술취히 남들같이 제대로 성장할까 하는 위구심도 있었습다. 그러나 남들 못지 않게, 남들보다 더 무럭무럭 자식이 자라나고 피어날 때 넘치는 격정하고 고마움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명이 길어 살아나지 아니하리라 평양산원의 의사, 간호사의 정성이 명으로 이어져 소생했습다.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 녀성들은 자식부까지 받아안게 되었으니 가슴속엔 오직 한 생각입니다. 우리 쌍둥이를 꼭 사랑의 요람을 지키는 총대 훌륭히 키우겠습니다. ...»

평양산원에서 두번째로 태어난 자기 딸이 놀라움과 자란다는 소식을 담자 주영회동무가 보내는 편지도 있었다. 편지들을 읽어보노라니 지난 날에는 우리 녀성들이 버질을 깔고 몸을 풀었지만 오늘은 산원에서 에기과를 낳게 되었고, 평양산원은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 궁전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5에기과 과장 김영복동무는 평양산원을 더 잘 알려면 우리 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영회녀성이 낳은 에기과를 보여주시었다. 두툼한 병력서에는 에기의 당시 몸무게며 건강상태, 시간별로 수혈된 고가약물의 이름과 수혈정형, 매일 측정된 에기의 체온과 호흡상태, 몸무게증가량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력서이기 전에 당의 품속에서 한 생명이 받아안은 사회주의혜택의 증거 같았다. 김영복동무는 자기네 과에는 그보다 더 두툼한 병력서들도 많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양산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던 한 녀성의 해산방조를 해주었다. 산모는 전분과자료를 계속 받아야 할 몸이었다. 그래서 산원에서 에기과를 이동보육기에 넣어 구급차로 5에기과로 후송하였다. 그는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있었지만 그것은 문제라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의 정성과 현대적인 의료설비, 사랑의 고가약물에 의하여 조산아인 에기의 건강상태는 불과 몇시간만에 호전되었으며 그후 빠른 시일내에 정상에기들과 같은 지표에 올라서게 되었다. 1000일이 넘는 그 나날 한 조산아를 위해 맨 처음부터 하여도 백수십장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산원에 가면 다 죽었다던 산모와 에기도 살아났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외국인들속에서도 울려나오는 감탄의 목소리이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당의 사랑과 온정이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5에기과 의료인들은 에기들에게 온정을 다 바친다. 울음으로써만 모든것을 호소하는 에기들의 «말»을 누구보다 잘 가려들음을 아는 간호원들은 산모들을 대신하여 에기들을 애지중지 돌보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 자기가 맡은 에기들의 체중을 달 때면 간호원들은 어머니마냥 가슴을 조이며 저울줄을 주시한다. 에기의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내 에기»가 컸다고 기쁨이 어쩔 줄 몰라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병원, 의료인들이 전적으로 산모와 에기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있다. 산모들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건강함을 돌보아야 한다. 침대에 누운채 여러가지 이동장치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보육기에 에기과를 옮겨놓아 주는 것은 녀성들 중에 진찰비판 말을 들어본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자기의 자식이 자라나고 에기들의 현대적인 영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인지,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그런 행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녀성들이고 우리 인민이다. 이처럼 세사롭게 흘러가는

«...주영회녀성에 대한 취재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9산과가 아니라 5에기과에 가 보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평양산원 5에기과에 들리게 되었다. 평양산원에는 여러개의 에기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5에기과는 산원에서 에기과를 «판문»으로, 또 하나의 «소생과»로 불리우는 중요한 단위이다. 바로 이런 과에 합동시 선전강구역 하신동 10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주영회동무가 낳은 에기과 김금후송원것은 지난해 9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주영회녀성은 몸을 풀기 위하여 친정집으로 가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에기일을 앞당겨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별차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와 만난 5에기과 의사 조은희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산모를 위해 정성을 다한 려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소생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말하지 못하였다. 그럼수밖에 없었다. 평양청년력개별차승무대의 승무대원들과 김형직군의 대학 학생을 비롯한 많은 려행자들이 주영회동무가 몸을 풀수 있도록 정성을 다 바치기도 이를 석사 알려주지 않고 산모를 평양산원으로 바래워주었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산원 의료인들은 어느 한 려행렬차의 승무대로부터 산모와 에기과를 넘겨받은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당시 산모는 최종상태에 있었고 에기는 조산이었다. 산모는 9산과로, 에기는 5에기과로 김금후송원것이다. 우리 녀성들이 «친정집»

에기과로 옮겨져 있었다. 평양산원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른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산원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시는 수많은 고가약물과 우리 의료인들만의 뜨거운 지성은 그대로 생명수가 되어 산모와 에기의 몸에 흘러들었다. 산원의 창가에 아름다운 수도의 야경이 비쳐들던 어느날 밤, 받아안은 온정에 베개잇을 적시는 주영회녀성에 9산과과장 김애순동무는 이런 말을 하였다. «머지않아 우리 산원이 창립 30돐을 맞게 되는데 바로 평양산원이 일떠서던 그때에 있는 일입니다. 당시 새로 건설되는 평양산원을 받아안고 돌원한것은 지난해 11월이라고 한다. 그는 자기들에게는 남다른 긍지가 있다고 하면서 한류음의 편지를 내놓았다. 무산에서, 숙천에서, 강동에서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광부, 농민, 관공의 안해를 이 보낸 편지속에는 나날이 커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 녀성은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자기 아이가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할 때 찍은 사진까지 보냈다. «술취히 남들같이 제대로 성장할까 하는 위구심도 있었습다. 그러나 남들 못지 않게, 남들보다 더 무럭무럭 자식이 자라나고 피어날 때 넘치는 격정하고 고마움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명이 길어 살아나지 아니하리라 평양산원의 의사, 간호사의 정성이 명으로 이어져 소생했습다.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 녀성들은 자식부까지 받아안게 되었으니 가슴속엔 오직 한 생각입니다. 우리 쌍둥이를 꼭 사랑의 요람을 지키는 총대 훌륭히 키우겠습니다. ...»

평양산원에서 두번째로 태어난 자기 딸이 놀라움과 자란다는 소식을 담자 주영회동무가 보내는 편지도 있었다. 편지들을 읽어보노라니 지난 날에는 우리 녀성들이 버질을 깔고 몸을 풀었지만 오늘은 산원에서 에기과를 낳게 되었고, 평양산원은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 궁전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5에기과 과장 김영복동무는 평양산원을 더 잘 알려면 우리 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영회녀성이 낳은 에기과를 보여주시었다. 두툼한 병력서에는 에기의 당시 몸무게며 건강상태, 시간별로 수혈된 고가약물의 이름과 수혈정형, 매일 측정된 에기의 체온과 호흡상태, 몸무게증가량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력서이기 전에 당의 품속에서 한 생명이 받아안은 사회주의혜택의 증거 같았다. 김영복동무는 자기네 과에는 그보다 더 두툼한 병력서들도 많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양산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던 한 녀성의 해산방조를 해주었다. 산모는 전분과자료를 계속 받아야 할 몸이었다. 그래서 산원에서 에기과를 이동보육기에 넣어 구급차로 5에기과로 후송하였다. 그는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있었지만 그것은 문제라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의 정성과 현대적인 의료설비, 사랑의 고가약물에 의하여 조산아인 에기의 건강상태는 불과 몇시간만에 호전되었으며 그후 빠른 시일내에 정상에기들과 같은 지표에 올라서게 되었다. 1000일이 넘는 그 나날 한 조산아를 위해 맨 처음부터 하여도 백수십장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산원에 가면 다 죽었다던 산모와 에기도 살아났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외국인들속에서도 울려나오는 감탄의 목소리이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당의 사랑과 온정이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5에기과 의료인들은 에기들에게 온정을 다 바친다. 울음으로써만 모든것을 호소하는 에기들의 «말»을 누구보다 잘 가려들음을 아는 간호원들은 산모들을 대신하여 에기들을 애지중지 돌보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 자기가 맡은 에기들의 체중을 달 때면 간호원들은 어머니마냥 가슴을 조이며 저울줄을 주시한다. 에기의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내 에기»가 컸다고 기쁨이 어쩔 줄 몰라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병원, 의료인들이 전적으로 산모와 에기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있다. 산모들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건강함을 돌보아야 한다. 침대에 누운채 여러가지 이동장치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보육기에 에기과를 옮겨놓아 주는 것은 녀성들 중에 진찰비판 말을 들어본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자기의 자식이 자라나고 에기들의 현대적인 영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인지,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그런 행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녀성들이고 우리 인민이다. 이처럼 세사롭게 흘러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산원 의료인들은 어느 한 려행렬차의 승무대로부터 산모와 에기과를 넘겨받은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당시 산모는 최종상태에 있었고 에기는 조산이었다. 산모는 9산과로, 에기는 5에기과로 김금후송원것이다. 우리 녀성들이 «친정집»

에기과로 옮겨져 있었다. 평양산원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른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산원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시는 수많은 고가약물과 우리 의료인들만의 뜨거운 지성은 그대로 생명수가 되어 산모와 에기의 몸에 흘러들었다. 산원의 창가에 아름다운 수도의 야경이 비쳐들던 어느날 밤, 받아안은 온정에 베개잇을 적시는 주영회녀성에 9산과과장 김애순동무는 이런 말을 하였다. «머지않아 우리 산원이 창립 30돐을 맞게 되는데 바로 평양산원이 일떠서던 그때에 있는 일입니다. 당시 새로 건설되는 평양산원을 받아안고 돌원한것은 지난해 11월이라고 한다. 그는 자기들에게는 남다른 긍지가 있다고 하면서 한류음의 편지를 내놓았다. 무산에서, 숙천에서, 강동에서 아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광부, 농민, 관공의 안해를 이 보낸 편지속에는 나날이 커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 녀성은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자기 아이가 조선인민군대에 입대할 때 찍은 사진까지 보냈다. «술취히 남들같이 제대로 성장할까 하는 위구심도 있었습다. 그러나 남들 못지 않게, 남들보다 더 무럭무럭 자식이 자라나고 피어날 때 넘치는 격정하고 고마움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명이 길어 살아나지 아니하리라 평양산원의 의사, 간호사의 정성이 명으로 이어져 소생했습다.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 녀성들은 자식부까지 받아안게 되었으니 가슴속엔 오직 한 생각입니다. 우리 쌍둥이를 꼭 사랑의 요람을 지키는 총대 훌륭히 키우겠습니다. ...»

평양산원에서 두번째로 태어난 자기 딸이 놀라움과 자란다는 소식을 담자 주영회동무가 보내는 편지도 있었다. 편지들을 읽어보노라니 지난 날에는 우리 녀성들이 버질을 깔고 몸을 풀었지만 오늘은 산원에서 에기과를 낳게 되었고, 평양산원은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 궁전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5에기과 과장 김영복동무는 평양산원을 더 잘 알려면 우리 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영회녀성이 낳은 에기과를 보여주시었다. 두툼한 병력서에는 에기의 당시 몸무게며 건강상태, 시간별로 수혈된 고가약물의 이름과 수혈정형, 매일 측정된 에기의 체온과 호흡상태, 몸무게증가량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병력서이기 전에 당의 품속에서 한 생명이 받아안은 사회주의혜택의 증거 같았다. 김영복동무는 자기네 과에는 그보다 더 두툼한 병력서들도 많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양산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던 한 녀성의 해산방조를 해주었다. 산모는 전분과자료를 계속 받아야 할 몸이었다. 그래서 산원에서 에기과를 이동보육기에 넣어 구급차로 5에기과로 후송하였다. 그는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있었지만 그것은 문제라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의 정성과 현대적인 의료설비, 사랑의 고가약물에 의하여 조산아인 에기의 건강상태는 불과 몇시간만에 호전되었으며 그후 빠른 시일내에 정상에기들과 같은 지표에 올라서게 되었다. 1000일이 넘는 그 나날 한 조산아를 위해 맨 처음부터 하여도 백수십장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산원에 가면 다 죽었다던 산모와 에기도 살아났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외국인들속에서도 울려나오는 감탄의 목소리이다.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당의 사랑과 온정이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5에기과 의료인들은 에기들에게 온정을 다 바친다. 울음으로써만 모든것을 호소하는 에기들의 «말»을 누구보다 잘 가려들음을 아는 간호원들은 산모들을 대신하여 에기들을 애지중지 돌보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다. 자기가 맡은 에기들의 체중을 달 때면 간호원들은 어머니마냥 가슴을 조이며 저울줄을 주시한다. 에기의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내 에기»가 컸다고 기쁨이 어쩔 줄 몰라한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병원, 의료인들이 전적으로 산모와 에기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있다. 산모들에게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건강함을 돌보아야 한다. 침대에 누운채 여러가지 이동장치를 받고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보육기에 에기과를 옮겨놓아 주는 것은 녀성들 중에 진찰비판 말을 들어본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자기의 자식이 자라나고 에기들의 현대적인 영양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인지,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은 그런 행보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녀성들이고 우리 인민이다. 이처럼 세사롭게 흘러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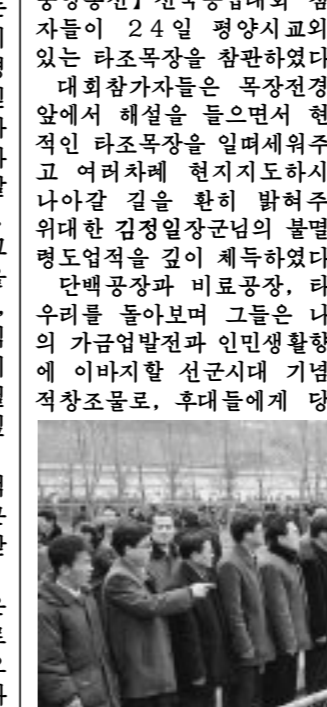
평양산원 의료인들은 어느 한 려행렬차의 승무대로부터 산모와 에기과를 넘겨받은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당시 산모는 최종상태에 있었고 에기는 조산이었다. 산모는 9산과로, 에기는 5에기과로 김금후송원것이다. 우리 녀성들이 «친정집»

당과 국가 간 부들 인민보안성협주단공연 관람



그들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당의 정치보위자로 역세게 자라나 혁명의 진취성과 인민의 안면을 믿을수있게 수호해온 궁지와 가슴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갈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내재하고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직한 계급투쟁의 선봉투사들이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업은 필수불변이라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다.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통속적이면서도 인식요약적의가 큰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선군령도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 라조목장 참관, 공연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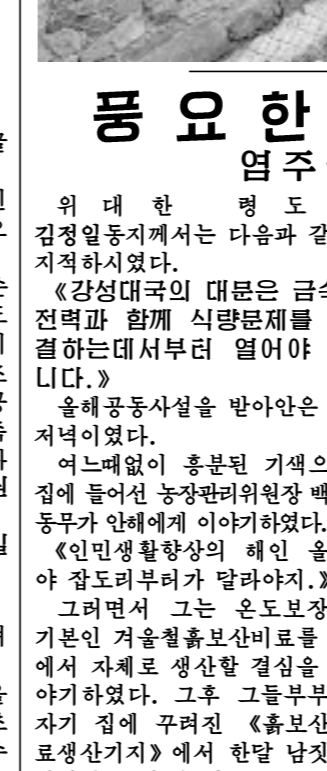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이 24일 평양시교외에 있는 라조목장을 참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목장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면서 현대적인 라조목장을 일대세워주시고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며 남아갈 길을 활취하며주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단백공장과 비료공장, 라조우리를 돌아보며 그들은 나라의 가금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선진성과 기밀비적창조로, 후대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대규모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건립된 목장의 면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목장의 과학화, 공업화, 사회주의화를 훌륭히 실현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무정정신을 본받아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제대인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다졌다. 대회참가자들은 이날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협주단예술인들은 혼성합창 «장군님께 영광을, 붉은 철령», 단성중창 «꽃이 번쩍 서어 번쩍 번쩍산사이드라», 녀성독창 «복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녀성4중창 «돌과하라 최첨단들», 가요중창 «선군승리 용해야», 타코프 «행군 또 행군», 남성독창 «단속에»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절세위인에 대한 열렬한 찬양과 애국의 정이 가슴마다에 차넘치게 하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작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일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총련기자, 언론인대표단 만경대 방문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총련 조선통신사 사장 양인원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기자, 언론인대표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교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명예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조국을 방위했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부장 강경익을 단장으로 하는 제

아름다운 우리 생활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이 24일 평양시교외에 있는 라조목장을 참관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목장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면서 현대적인 라조목장을 일대세워주시고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며 남아갈 길을 활취하며주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였다. 단백공장과 비료공장, 라조우리를 돌아보며 그들은 나라의 가금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선진성과 기밀비적창조로, 후대들에게 당당히 물려줄 대규모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건립된 목장의 면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은 목장의 과학화, 공업화, 사회주의화를 훌륭히 실현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무정정신을 본받아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제대인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다졌다. 대회참가자들은 이날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협주단예술인들은 혼성합창 «장군님께 영광을, 붉은 철령», 단성중창 «꽃이 번쩍 서어 번쩍 번쩍산사이드라», 녀성독창 «복두칠성은 그리움의 별», 녀성4중창 «돌과하라 최첨단들», 가요중창 «선군승리 용해야», 타코프 «행군 또 행군», 남성독창 «단속에»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절세위인에 대한 열렬한 찬양과 애국의 정이 가슴마다에 차넘치게 하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작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빛내일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재일조선학생소년 예술단이 떠나갔다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조국을 방위했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부장 강경익을 단장으로 하는 제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조국을 방위했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부장 강경익을 단장으로 하는 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까지부소조, 플레지부소조, 글랄레부소조, 민주광교, 인민사상총합대학 주체사상연구소조, 인도네시아 드위 미트라 빠르까싸회사에서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와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멸의 위력과 우월성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까지부소조 책임자는 토론회에서 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특히한 자주리념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신분은 사회주의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이며 그를 종합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나시는분은 김정일명동지이다.

조선인민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조선의 현실은 자주는 진리이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이끄시는 자주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언제나 필승불패한 것이다.

민주광교, 인민사상총합대학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토론에서 김정일각하는 국제사회의 공인된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활동은 우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순결하게 이어가는 철저한 계승성으로, 새로운 발견과 혁신으로 일관된 활동이다.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와 구체적실정에 맞게 인민이 나아갈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시대성이 뚜렷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다방면적인 활동이다.

우리는 김정일각하께서 발전공부하시키는 시대성이 뚜렷하고 선군사상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 것이다.

인도네시아 드위 미트라 빠르까싸회사 사장은 강연에서 김정일명동지는 사회주의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고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현실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라고 칭송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제께서는 선군혁명명도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의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나가신다.

이제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선군정치

방식을 확립하시어 조선을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킨것이다. 회세의 정치가 이신 김정일명동지의 로수학과 세련된 명도필에 최강의 정치, 군사적합을 다진 조선인민은 경제강국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에티오피아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까지부소조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적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네팔,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에서 토론회, 사진전시기, 영화감상회가 5일과 8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선군정치와 생활력,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네팔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 결구원회 부위원장장은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을 뜻깊게 여기는것을 내방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필에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대하여

연급하고 이 모든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귀감으로 된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길과 고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실정을 축원하였다.

방글라데시 보리살선군정치연구회 고문은 토론에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승완성해나 가시는 김정일각하를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더없는 행운이며 영광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인민대회 프레스리에서 마흐람반들르피 지부 위원장은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을 감상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력적인 명도로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다.

세상에는 명도자들이 많지만 그이처럼 그토록 인민을 애기고 사랑하시는 명도자, 인민을 선행으로 내세우시는 명도자는 없다.

함으로 그는 인민대중중시철학으로 나라의 정사를 떠나가는 인민의 친근한 어버이이다.

그이의 현명한 명도가 있기에 오늘 조선인민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탄생일을 맞으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그이께서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

네팔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적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

2. 16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쁜글을 실었다.

로씨야신문 《벨스가야 쥐즌》 9일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전을 모시고 《리론과 실천을 겸비하신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 1월 한달동안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단행하셨으로써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였으며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논증함으로써 탁월한 사상리론가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으시는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올해 1월 한달동안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정력적인 현지지도를 단행하셨으로써

신문은 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수

선군령도로 조선을 빛내이시는 전설적위인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회원인 요코야마 유지 일본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이 19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탄생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충모의 정을 담아 꽃바구니를 삼가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회세의 선군명장이시며 천하제일의 위인이신 그이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나라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로고와 실험을 바치고계신다.

이번 방문기간 우리는 그이에 대한 흥미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하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시켰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선군정치는 나라의 발전을 담보하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파시되고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의 기치를 높이 드시어 선군의 군대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이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올수 있는것은 그이를 걸출한 명도자로 모셨기때문이다.

진정 그이께서는 위대한 선군령도로 조선을 빛내이시는 전설적위인이시다. 그의이름과 위대한 조선인민은 건반적국력을 비상히 강화하고있다.

나는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한다.

김정일총비서의 위대한 구상을 받들고 조선인민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그 과정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조선의 현실은 절세위인의 세련된 명도를 받는 인민은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김정일총비서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리라 확신한다.

자기 명도자를 무한히 신뢰하는 조선인민에게 승리와 영광만이 있기를 축원한다.

미국의 비방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에드 알리 카메네이가 17일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비방중상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주판장이 중동지역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아닌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지역을 나라들을 핵화하여서 이란정부가 《군사독재정권》으로 뒤여가고

있다고 경고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을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중상을 배격

중국 섭시에서는 토지투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성에서는 지난 10년동안에 5440개의 언덕을 새로 건설하여 많은 민중의 휴과 건설에 물에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맑은공기가 늘어나고있다 한다.

안골라에서 안골라에서 최근 2개의 새로운 원유매장지가 발견되었다.

루안다로부터 서북쪽으로 350km 떨어진 바다수역에

위치하고있는 이 매장지에서는 지금 시험착굴 하루 평균 각각 1600bbl, 6400bbl의 원유를 생산하고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세계적인 금용위기의 부정적영향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8일 금용정책조정위원회를 창설하였다.

6명의 정부성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대발 회의를 열고

나사의 경제 및 금융정책을 판별하는데 나서는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 한다.

메이코에서 메히코의 수도에서 최근 신행독감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었다.

17일 시보전당국은 이번 에 총 50만명의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추위가 계속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신행독감의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한다.

산사태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지역에서 17일 눈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컸다.

눈사태로 1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산사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18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수백명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많은 주민들이 안전 한 곳으로 긴급대피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팜도의 한 생물학자는 《미군이 신행독감전염을 전파시키려는 일부 지역들은 원시림지대들도 포괄하고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이곳의 림목들을 일부 없애야 할것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팜도의 한 정치인은 미군이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지하려는 행위를 두고 《이것은 팜도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예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림방정부가 팜도에서 너무나 많은 토지를 몰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고 있다. 팜도정경협회 경영자는 미군이 자기의 혐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정마장을 넘겨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팜도에 대한 미국의 군기지확장과 강화책들은 섬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은 들리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판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 섭시에서는 토지투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성에서는 지난 10년동안에 5440개의 언덕을 새로 건설하여 많은 민중의 휴과 건설에 물에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맑은공기가 늘어나고있다 한다.

안골라에서 안골라에서 최근 2개의 새로운 원유매장지가 발견되었다.

루안다로부터 서북쪽으로 350km 떨어진 바다수역에

위치하고있는 이 매장지에서는 지금 시험착굴 하루 평균 각각 1600bbl, 6400bbl의 원유를 생산하고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세계적인 금용위기의 부정적영향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18일 금용정책조정위원회를 창설하였다.

6명의 정부성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대발 회의를 열고

나사의 경제 및 금융정책을 판별하는데 나서는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 한다.

메이코에서 메히코의 수도에서 최근 신행독감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었다.

17일 시보전당국은 이번 에 총 50만명의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추위가 계속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신행독감의 전파를 철저히 막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한다.

산사태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지역에서 17일 눈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컸다.

눈사태로 1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산사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18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수백명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많은 주민들이 안전 한 곳으로 긴급대피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팜도의 한 생물학자는 《미군이 신행독감전염을 전파시키려는 일부 지역들은 원시림지대들도 포괄하고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이곳의 림목들을 일부 없애야 할것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팜도의 한 정치인은 미군이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지하려는 행위를 두고 《이것은 팜도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예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림방정부가 팜도에서 너무나 많은 토지를 몰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고 있다. 팜도정경협회 경영자는 미군이 자기의 혐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정마장을 넘겨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팜도에 대한 미국의 군기지확장과 강화책들은 섬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은 들리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판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논사태

파키스탄의 코히스탄지역에서 17일 눈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컸다.

눈사태로 1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산사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18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콘콜로 수백명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많은 주민들이 안전 한 곳으로 긴급대피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팜도의 한 생물학자는 《미군이 신행독감전염을 전파시키려는 일부 지역들은 원시림지대들도 포괄하고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이곳의 림목들을 일부 없애야 할것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팜도의 한 정치인은 미군이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지하려는 행위를 두고 《이것은 팜도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예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림방정부가 팜도에서 너무나 많은 토지를 몰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고 있다. 팜도정경협회 경영자는 미군이 자기의 혐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정마장을 넘겨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팜도에 대한 미국의 군기지확장과 강화책들은 섬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은 들리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판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팜도의 한 생물학자는 《미군이 신행독감전염을 전파시키려는 일부 지역들은 원시림지대들도 포괄하고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이곳의 림목들을 일부 없애야 할것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팜도의 한 정치인은 미군이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지하려는 행위를 두고 《이것은 팜도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예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림방정부가 팜도에서 너무나 많은 토지를 몰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고 있다. 팜도정경협회 경영자는 미군이 자기의 혐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정마장을 넘겨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팜도에 대한 미국의 군기지확장과 강화책들은 섬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은 들리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판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팜도의 한 생물학자는 《미군이 신행독감전염을 전파시키려는 일부 지역들은 원시림지대들도 포괄하고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이곳의 림목들을 일부 없애야 할것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팜도의 한 정치인은 미군이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지하려는 행위를 두고 《이것은 팜도주민들에게 있어서 매우 예민한 문제이다.

예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림방정부가 팜도에서 너무나 많은 토지를 몰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들이고 있다. 팜도정경협회 경영자는 미군이 자기의 혐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정마장을 넘겨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땅을 차지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팜도에 대한 미국의 군기지확장과 강화책들은 섬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은 들리우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인 비판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조성철

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일본의 부당한

오스트랄리아수상 케빈 루드가 19일 한 회견에서 일본이 부당한 고배압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데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일본이 《과학연구》의 간판을 걸고 년간 수백마리의 고래를 마구 잡아들이므로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날이 갈수록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독점과 봉쇄책동, 그를 통한 지배와 약탈이 강화되고있는 오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인 하나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강자가 되고 강국이 되지만 그렇게 못하면 약자도 되게 된다.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힘을 넣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많은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신년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사회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싱가포르수상은 신년사에서 세계에 전제인 사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모든 부문에서 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말레이시아 수상은 기술혁신을 하여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행위에 경고

세계평화를 심히 위반하고 고래를 멸종위기에 빠뜨리고있는데 대해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일본이 고래잡이를 시급히 중지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는 일본에 대한 국제적소송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뉴델리에서 뉴델리에서 우리는 눈물로 남달로 뒤떨어져서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2010년을 《창조와 기술 혁신의 해》로 선포하고 정부가 국가기술혁신센터를 내오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과학자대회에 참가한 인디아수상은 연설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식량안전을 담보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고 하면서 중요 요인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 고강성에서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디아에서는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고리로 새로운 위성발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위성 《카르타스-2B》가 발사되게 된다고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과학기술협력과 교류가 긴밀해지고있다. 얼마전 중국과 싱가포르 등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쌍무교류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회를 새로 내었다.

이보다 앞서 중국과 가나는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호상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남남협력조를 강화하는것은 발전도상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과학기술독점책동을 짓부시고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적부흥,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노력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배금희

미해군직승기 추락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8일 미해군직승기 4기 비행훈련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여러명의 부상자가 났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전국의 과학연구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연구소들이 현대화되면 나라의 과학기술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며 다른 나라들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히 진행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것이라고 한다.